

백원국 차관, GTX-A 운영상황 점검과 시민소통

- “평일 첫 운영을 앞두고 책임 있는 서비스” 당부 -

-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(GTX-A) 개통 이튿날인 3월 31일, 오전 10시부터 동탄역·성남역·수서역을 차례대로 방문하며 GTX-A 운영 상황 전반을 점검하였다.
- 백 차관은 운영사 및 국가철도공단 등으로부터 개통 첫날 운영 실적 및 상시대응 체계 운영 현황 등을 보고받고, “운영사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운영 업무에 빈틈없이 임하고, 이례 상황에 대비하여 국토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으로 24시간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 - 또한, 백 차관은 대합실, 개찰구, 환승통로, 승강장 등 현장 곳곳을 꼼꼼히 살피며, 역사 곳곳에 배치된 안내요원들을 만나 “GTX 이용객 모두가 내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친절히 안내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- 백 차관은 GTX 열차에 탑승하여 GTX 서비스를 처음 경험해보는 시민들의 이용소감을 청취하며 소통하였다.
 - 백 차관은 “개통 전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자 관점에서 철저히 살피고 개선 조치하였는데, 미처 발견하지 못한 미비사항이 있을 수 있다”면서,
 - “시민들께서 불편사항에 대해 현장 역무원, 안내요원 등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부에서 책임지고 조치하겠다”라고 언급하였다.
- 백 차관은 현장 점검을 마치면서 “내일은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을 위해 GTX를 이용하는 첫 평일인 만큼, 주말과 일요일 동안의 이용객 반응과 불편사항을 면밀히 살피 즉각 조치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로 운영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”을 당부하였다.

2024. 3. 31.

국토교통부 대변인